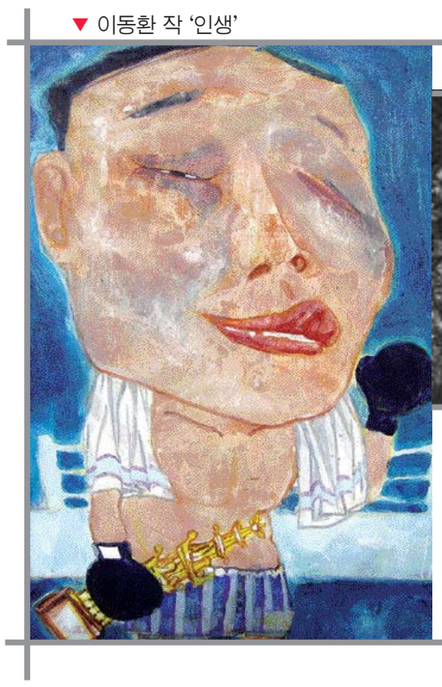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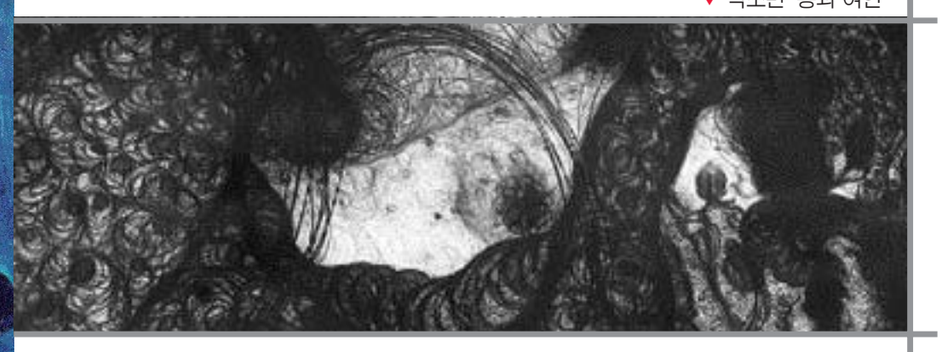
▼ 이동환 작 '인생'



▼ 박소빈 '용과 여인'



청년작가의 열정이 한여름 미술계를 달군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은 11일~10월4일 '제9회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을 갖는다.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은 이우환 작품 20여점 등 3천여점의 작품을 미술관측에 기증한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기획전시이다.

청년작가들 한여름 미술계 달군다

광주시립미술관 11일부터 하정웅작가초대전

실험정신 빛난 영상·입체 작품 60여점 선보여

이번 전시에는 광주에서 활동해온 박소빈와 권영성(대전) 이동환(서울) 임영선(부산) 추종완씨(대구)가 참여해 회화, 영상, 입체작품 60점을 선보인다.

현재 뉴욕의 한 레지던스프로그램 작가로 선정돼 뉴욕에서 거주하고 있는 박씨는 연필화를 전시한다.

경북 영주 부석사에 전해오는 의상대사와 중국의 여인 선묘와의 사랑을 담은 설화를 모티브로 한 용 그림은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상상의 동물 용과 영원불멸의 사랑을 꿈꾸는 여인을 통해 에너지, 여성성을 강조한다.

장흥 출신인 이씨는 사회적 발언을 담은 비판적인 그림을 선보인다. '병적인 웃음'을 테마로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현대사회의 모순을 꼬집는다.

양의 탈을 쓴 등장인물들의 위선에 찬 웃음을 역설적으로 그려 힘과 논리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또 지도를 그리듯 대상을 표현하는 권씨는 거북, 나뭇잎, 눈동자, 눈 등을 그려 선보이다. 촘촘한 도로의 그물망과 지도를 표시하는 등고선, 지형지물기호 등이 등장한다. 지도는 공간과 공간의 관계, 공간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밖에 임씨는 중국, 캄보디아, 몽골 등을 여행하면서 만난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표정을 화폭에 담았다. 추씨는 구겨진 인간의 상반신, 고양이, 개 등을 통해 순수한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을 형상화했다.

박지택 관장은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은 그동안 한국 미술을 이끌어 갈 젊은 작가들을 다수 발굴했었다"면서 "이번에 소개되는 작가들도 의미있는 작품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미래를 더욱 빛낼 작가들이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뮤지컬 갈라 디너쇼가 찾아온다

광주 연극계 저변 확대

금호 화순리조트서

14~15일 색다른 무대

여름 휴가가 한창인 지난 8일 오후 7시, 피서객들이 몰려든 금호화순리조트 무등홀에서는 조금 색다른 행사인 '뮤지컬 갈라 디너쇼'가 열렸다.

낮 시간 동안 수영장과 워터파크, 온천 등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300여명의 이용객들은 가족들과 둘러 앉아 저녁 식사를 한 후 곧이어 재미있는 마술과 뮤지컬 공연을 감상했다.

금호화순리조트와 광주연극협회(회장 박규상) 소속 극단 '터', '진달레 피네'가 함께 기획한 이번 무대는 지역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참신한 행사로 눈길을 끌었다.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됐고, 오는 14~15일(식사 오후 7시, 공연 오후 8시)에도 열릴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극단들의 활동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극장으로 관객들이 찾아오기를 바라던 데서 벗어나 다양한 기획을 통해 관객을 직접 발굴하고, 식사와 공연을 접목시키는 등 참신한 기획으로 눈길을 끌었다.

또 지역에서 만들어진 문화 콘텐츠로 관객들에게 새롭게 다가갔다는 데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번에 무대에 올린 작품은 극단 진달레 피네의 'Love Is'. 다양한 연령대의 사랑과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를 엮어 만든 가벼운 뮤지컬로 '렌트', '싱글즈', '아이 러브 유', '맘마미아', '그리스' 등 국내외 유명 뮤지컬의 삽입곡을 만날 수 있는 작품이다.

출연진은 김하정·안정열·김소아·남궁인씨 등으로 지난 2007년부터 극단 진달레 피네가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번 무대는 정식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관객들을 만난 터라 음향과 조명 시설 등이 미흡하고 극의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휴가철 색다른 추억을 만들려는 관객들에게는 흥미로운 무대였다.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한 극단 터의 정순기 대표는 "처음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반신반의했는데 관객들의 호응이 좋아 뿌듯하다"며 "내년에는 야외무대에서 세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 등 좀 더 규모가 큰 작품을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근 금호화순리조트 본부장은 "리조트가 놀이 공간 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보여주는 공간으로도 활용돼 의미가 있다"며 "고객들의 반응이 좋아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주말 상설공연으로 진행하기 위해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뮤지컬 관람료는 1인 1만원이며 식사(햄버거 스테이크·와인)를 함께할 경우 2만2천원이다. 티켓을 구입하면 금호화순리조트 워터파크 아쿠아나 50% 할인 혜택도 준다. 문의 061-372-80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정법불교 모색하는 '야단법석'

14~18일 남원 실상사

한국불교의 현주소와 대안을 찾는 토론회가 남원 실상사 일원에서 열린다.

화엄사·쌍계사·대원사·벽송사·실상사 등 지리산 주변 사찰들의 연대모임인'민족성지 지리산을 위한 불교연대 준비위'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정법불교를 모색하는 지리산 야단법석'을 펼친다.

'금강경의 눈으로 오늘의 한국불교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는다'는 주제로 열리는 야단법석은 현대불교를 하나로 아우르는 불교관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생명·평화 등 위기에 처한 현대문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점검,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스님은 표준금강경을 통해 한국불교가 갖고 있는 수행의 문제점을 진단할 예정이며 혜국스님(전국선원수좌대표)은 한국불교의 바람직한 수행 방향을 제시한다.

또 향봉스님(전 조계종 총무부장)과 도법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은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불교의 대안을 모색한다. 그밖에 자유토론, 작은 음악회 등도 마련된다. 문의 063-636-3031.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불탄 숭례문 복구현장 일반 공개

15일부터 매주 토·일 관람

숭례문 복구현장〈사진〉이 9개월 만에 일반에 다시 공개된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광복절인 15일부터 2012년 복구공사가 끝날 때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숭례문 복구현장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해 광복절부터 3개월간 복구현장을 공개해 3천700명이 관람했지만, 가설 덧집 설치공사 때문에 그동안 공개 관람을 중단했다.

이번에는 가설덧집 내부 5층에 공개관람실이 만들어져 지난해보다 가까운 위치에서 숭례문 복구과정을 관람할 수 있다. 관람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12시, 오후 1~3시, 일요일 오후 1~4시에

30분 간격으로 하루 6차례 진행하며 1회 관람 인원은 30명이다.

관람 신청은 숭례문 복구현장 공개관람 사이트(www.sungnyemun.or.kr)를 통해 10일부터 할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비엔날레 재단

직원모집 합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정책연구실에서 일하게 될 예술이론 및 예술행정 분야(재단 3급) 경력 또는 신규 1명과 홍보 및 마케팅 담당자(재단 5급) 신규 1명 등 2명의 직원을 채용한다.

3급 경력자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영어회화, 3차 면접을 거쳐야 하고, 3급과 5급 신규 지원자는 1차 논술(국문, 영문)과 2차 영어회화, 3차 면접을 거쳐 선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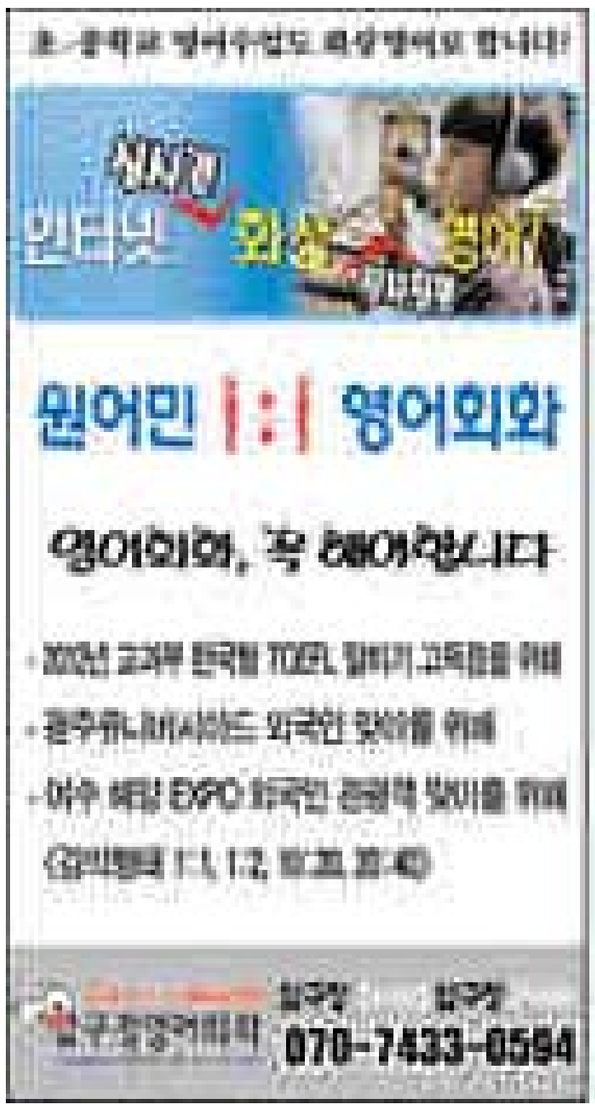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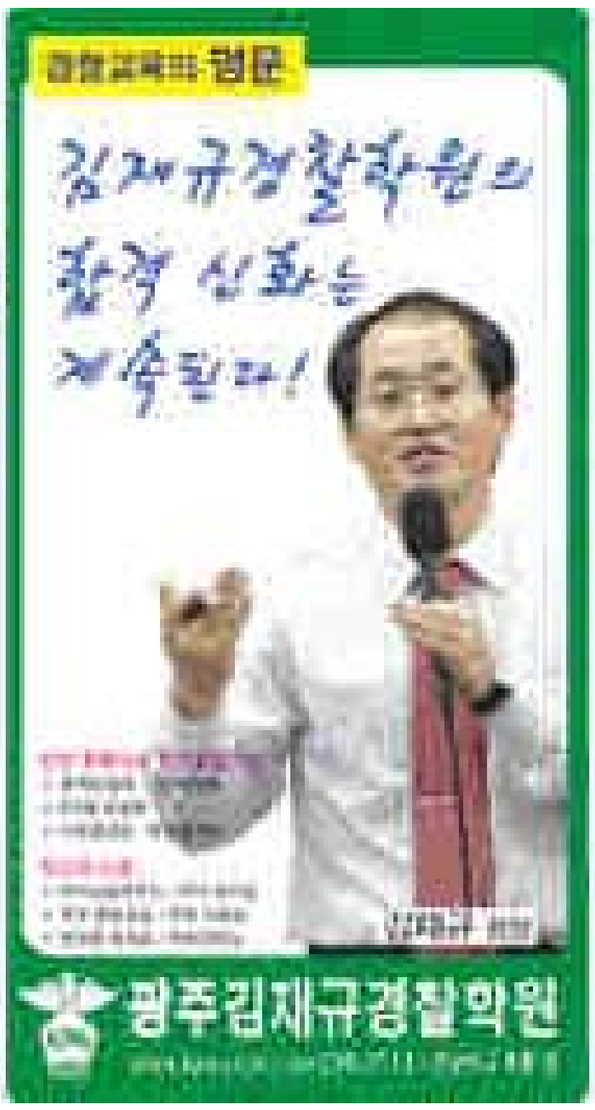
응시원서는 17~21일 접수하며 방문접수와 등기우편, E-mail로도 가능하다. 문의 062-608-421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승우 '식물들의…' 프랑스 폴리오 시리즈로 재출간

조선대 국문과 교수이자 소설가인 이승우(49)씨의 장편소설 '식물들의 사생활'(문학동네 펴냄)이 최근 프랑스 갈리마르 출판사의 폴리오 시리즈로 재출간됐다. 이 시리즈에 한국 문학작품은 처음이다.

폴리오 시리즈는 프랑스 명문 출판사인 갈리마르가 알베르 카뮈, 생텍쥐페리, 르클레지오 등 세계적 작가들의 작품을 포켓판으로 선보이는 것으로 1972년 이후 현재까지 총 4천351종을 발간했다.

'식물들의 사생활'은 지난 2006년 프랑스 쥘마 출판사에서 첫 불어판이 출간돼 현지 언론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으며 출간 한 달 만에 초판 2천500부가 매진되기도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